

“학교에서의 빛나는 추억, 영원히 기억해주길”

전북대, 외국인유학생 졸업식 훈훈한 분위기 속 거행

“외국인 유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전북대학교에서의 빛나는 추억, 영원히 기억해 주십시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21일 오전 이달 말로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졸업식을 열어 따뜻한 한국의 정을 선물했다.

Remember (CNU) 라는 부제가 붙은 유학생 졸업식은 대학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소중한 기억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전북대가 지난해부터 별도 행사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하고 졸업 후 네트워크 구축과 본국에서 한국 유학생들의 우수성을 전파해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이날 졸업식에는 학부와 대학원 등에서 139명이 소중한 졸업장을 받았으며 이남호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그간 타지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정진한 유학생들의 새 발걸음을 격려했다. 또한 졸업자 대표의 소감 발표와 함께 유학생들의 친구와 후배들이 남긴 졸업 축하 메시지 동영상 시청을 통해 감회에 젖었다.

이어 대학이 마련한 만찬으로 이어진 2부에서는 한국생활에의 소중한 기억을 나누고 서로서로 졸업을 축하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21일 전북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졸업식이 열린 가운데,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하늘 위로 던져 올리고 있다.

유학생을 대표해 샘 노밍턴(영국) 학생은 “전북대에서 배운 다양한 교과목들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지금 이 순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준 대학에 감사하다”며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전북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전북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해은 기자

도, 신규 소방관 57명 임용장 수여식

전북도는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장 57명, 가족·지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소방관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규 임용은 지난해 채용했던 128명 중 잔여인력 57명에 대한 임용으로써 화재진압 44, 구급 8, 구조 1, 차량정비 2, 상황관리 2명을 배치해 출동부서의 인력운영을 안정화시키고자 진행됐다.

특히 신규 임용자 중 차량정비 분야 인력 채용으로 소방차량 고장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 발 빠른 현장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지사는 “각종 재해나 사고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소방공무원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감동이다”며 “소방공무원으로서 명예와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도민안전지킴이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홍 기자



임실 우리음식연구회 봄철음식 교육

임실군이 바쁜 농번기에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한 ‘한끼 건강식’ 음식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와 우리음식연구회 주관으로 2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대상은 우리음식연구원 회원 40명으로, 요리에 관심이 많은 임실군 농촌 여성들이다.

농한기를 이용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제품개발교육장에서 실시되며, 전통음식아카데미 정미경 원장의 강의와 실습이 병행돼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계절음식의 중요성과 봄철 대표 식재료인 냉이와 봄돌, 달래를 이용한 요리와 각종 영양밥 만들기 등 16가지 음식 레시피 제공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시의회 오정화 의원 ‘탁월한 교육자상’ 수상



전주시의회 오정화 의원(인후3, 우아·2동)이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코로나 소재 HIS University 2017년 학위수여식에서 우수 교수 요원에게 수여하는 탁월한 교육자상(Outstanding Educator Award)을 수상했다.

이 상은 HIS University(총장 양은순) 개교 이래 처음 수여하는 우수 교육자상으로 오정화 의원이 선정됐다.

오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주 교육계에 참신한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들 겨울학기 한국문화 체험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는 최근 아산 외암마을, 담양 무월마을, 관양 도산국가 마을에서 400여명의 외국인 한국어 연수생과 함께 한국 농촌 문화체험을 통한 정서공유와 유학생간 교류확대를 위해 겨울학기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대학과의 소속감을 증대시켜 안정적인 유학생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매 학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날 외국인 유학생들은 울무팔찌와 전통떡, 쌀강정, 천연비누, 매실강정, 천연염색 손수건 등을 만들어 보며 다양한 한국 전통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각 도시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현충사, 담양 죽녹원, 순천만생태공원 관광을 통해 학업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은 “책에서만 보던 한국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반 친구들과 열골한 한 하트 강정을 만들어 웃고 즐기니 반 친구들과 우애가 돈독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남호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내 생활의 빠른 적응을 돕고 한국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안정된 유학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김제 교월동 전 통장협의회, 김제사랑장학금 100만원 전달

김제시 교월동 前 통장협의회(전임회장 이춘구)는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새달라며 21일 김제시청을 방문하여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는 교월동 통장협의회는 회원들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뜻을 같이하며 매월 작지만 소중한 적립금을 모아 연말 불우이웃돕기 활동, 동민의 날 행사 후원 및 경로당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에 앞장서고 있다.

이춘구 전임 회장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김제의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교월동 통장들은 지역발전에 항상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장학금 기탁 등 지속적인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복 부시장은 “김제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알림

▲순창 동계초등학교 연합총동문회= 일시: 25일 오전 11시, 장소: 전북여성일자리센터(전주종합경기장 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참석 대상: 동계·성동·영동·구미초, 연락처:010-3680-1920(임규태 회장), 010-8286-2795(최상규 사무총장)

결혼

▲박진배(박민식·최순자씨 처남)·박소연(박래춘·김명순씨 처녀)양= 일시: 25일(토) 낮 12시 30분, 장소: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 2층 컨벤션홀

봉사 내방

▲전성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권영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실장

중화산2동, 어르신들 초대 훈훈한 떡국 잔치 벌여

중화산2동(동장 김봉정)·e-석쇠한반본점(대표 임일선)에서는 21일 관내 어르신100여명을 초대해 떡국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정유년 한해동안 지역 어르신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중화산2동 화산상가7번 영회와 온전주토탈리클럽 후원으로 진행됐다.

임일선 대표는 “어르신들을 위해 사골을 고아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작은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온전주토탈리클럽은 2016년에 중화산2동 주민센터와 천년전주 결연봉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에 선행을 실천해 왔다. /김영재 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원룸 밀집지역 환경정비

인후3동(동장 신용남) 새마을협의회(회장 황승일) 회원 20여명은 21일 관내 불법투기 쓰레기 취약지역인 원룸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원들은 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 일대와 원룸지역 이면도로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 등을 치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날 새마을협의회회원들은 원룸일대 거주 주민들에게 쓰레기종량봉투 사용 및 분리수거 생활화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신용남 인후3동장은 “비밀일정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찾고 싶은 인후3동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2일 등록(일간) (주)전주매일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출동) 등록번호 전북 가00116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겸 편집국장 김관준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874	남원지사 652-38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911	인후지사 249-6885	김제지사 547-688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창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85	진안지사 433-3094
호지지사 010-9845-9885	팔백지사 253-6884	남원지사 652-0885	정읍지사 536-3787
	신성지사 445-0157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858-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영민 무주시장, 적상파출소 방문 현장 감담회

무주경찰서 나영민 서장은 21일 오전 8시 관내 적상파출소를 방문해 야간근무를 마친 파출소 직원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나 서장은 현장 방문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치안활동을 부탁하고, 직원들의 출퇴근 및 건강 등을 걱정하며 현장경찰관들의 직무만족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방문은 적상파출소 관내 국가유공자 유가족(미망인, 이0080세) 집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국가에 봉사하신 유가족 어르신을 격려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 산서면 이장단 회의서 치안정책 홍보

장수경찰서(서장 전주호) 산서파출소는 20일 오전 장수군 산서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치안정책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홍보활동은 최근 경찰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생활경제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3대 반칙(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와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농축산물절도,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곽노태 기자